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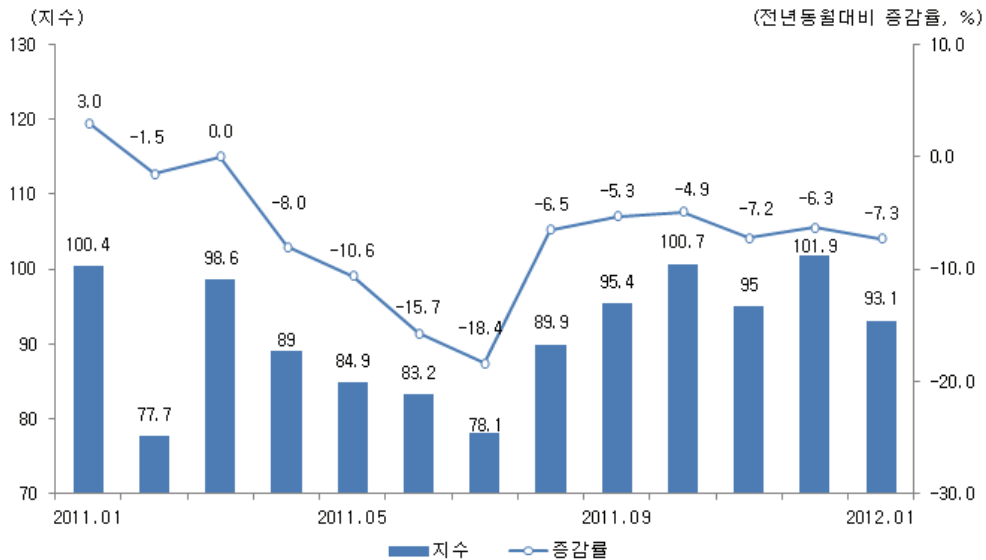
소비	<p>서울의 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9% 소폭 증가하여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패션용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의 판매 감소와 기저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p> <p>전년동월대비 부문별 판매액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 각각 1.0% 증가 하였으며, 권역별로는 4권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강동구가 1위, 그 다음으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인 것으로 나타났다.</p>
고용	<p>서울의 고용동향은 고용관련 지표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령층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표별로는 고용률 증가, 실업률 하락으로 취업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그러나 전국과 서울의 실업률을 비교한 경우 1.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서울의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시장의 호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취업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현상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p>
물가	<p>서울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2% 증가로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항목은 유가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은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인 것으로 나타났다.</p> <p>그 다음으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5.0%), 의류 및 신발(4.3%) 등의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p> <p>지역별로는 전도시의 물가 지수가 105.7로 서울(105.4)에 비해 0.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부동산	<p>서울의 1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주택전세가격은 지난달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었다.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수세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p>

| 생 · 산 |

서울의 1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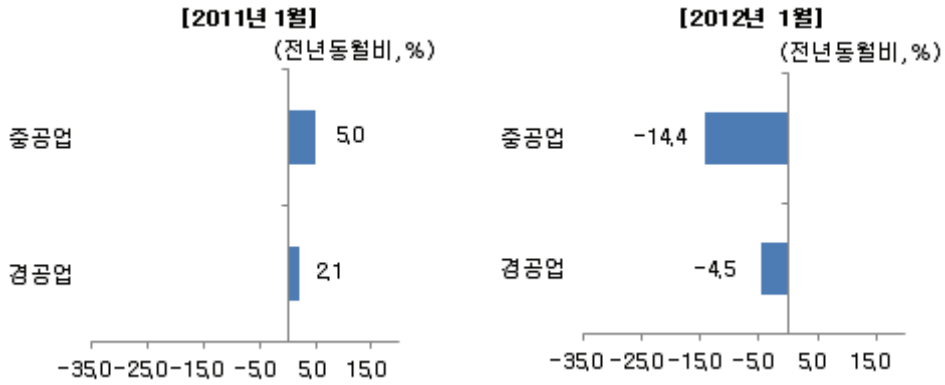
■ 서울의 1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1월 산업생산지수는 97.9(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7.3%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4.4%,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4.5% 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14.9%)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7.2%), 전기장비(-37.8%), 종이제품(-54.9%)등에서 감소
- 11개월 연속 중공업 부문의 감소세 지속이 서울 산업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1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1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0% 감소
-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반도체 및 부품(8.3%), 석유정제(6.2%) 등은 증가 하였으나, 자동차(-6.9%), 영상음향통신(-11.2%) 등의 부진으로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12.6%), 숙박·음식점(-4.7%) 등에서 감소, 금융·보험(2.6%), 교육(4.1%) 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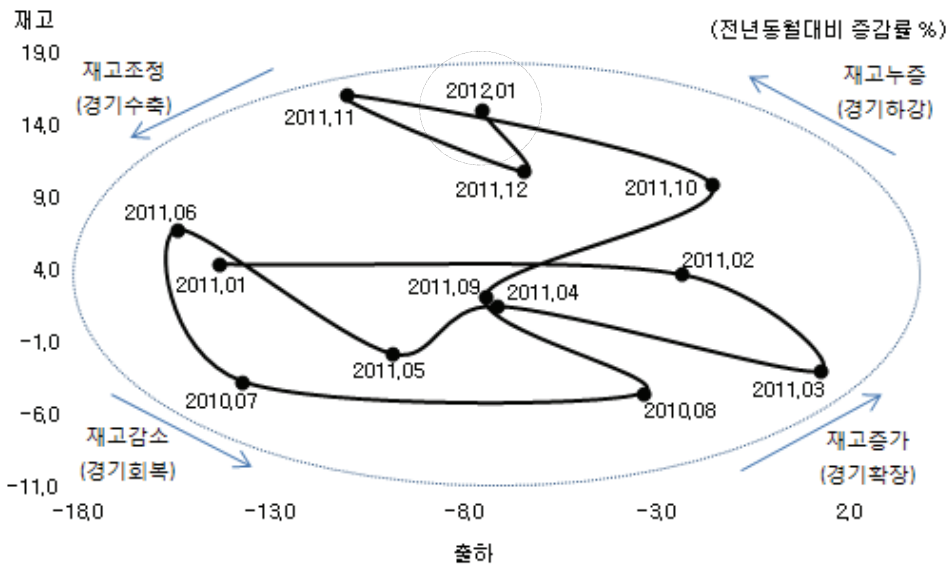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1월 제조업부문 재고누증 단계

- 서울의 1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서울의 1월 재고지수는 180.1(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15% 증가, 출하지수는 102.7(2005=100.0)로 7.8% 감소
 - 전년동월대비 기타제품(29.6%) 증가 의복 및 모피(-7.5%), 전기장비(-34.7%), 가스업(-7.8%) 등에서 감소
 -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경기수축)	재고감소 (경기회복)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경기하강)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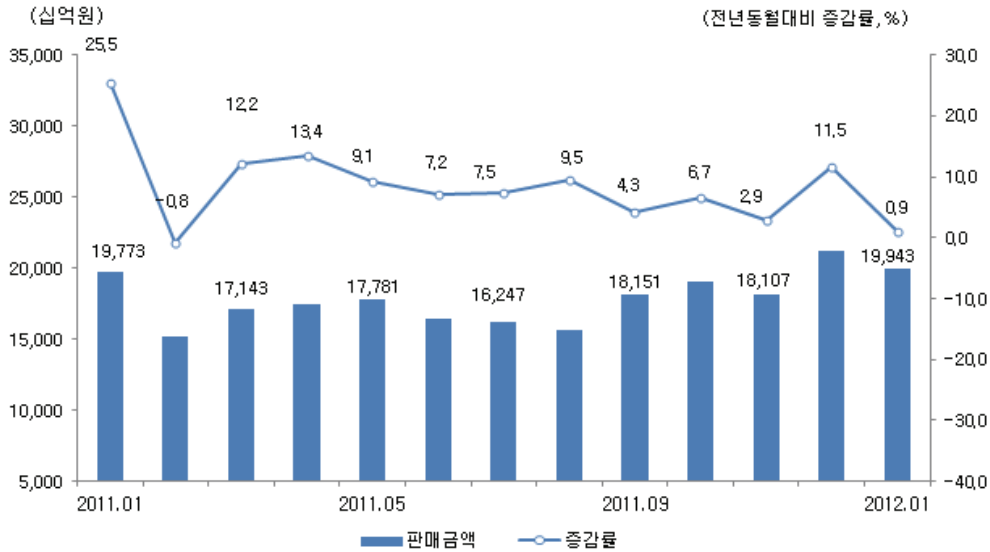
| 소 · 비 |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0%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로는 패션용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의 판매가 감소와 기저효과 등이 판매액 증감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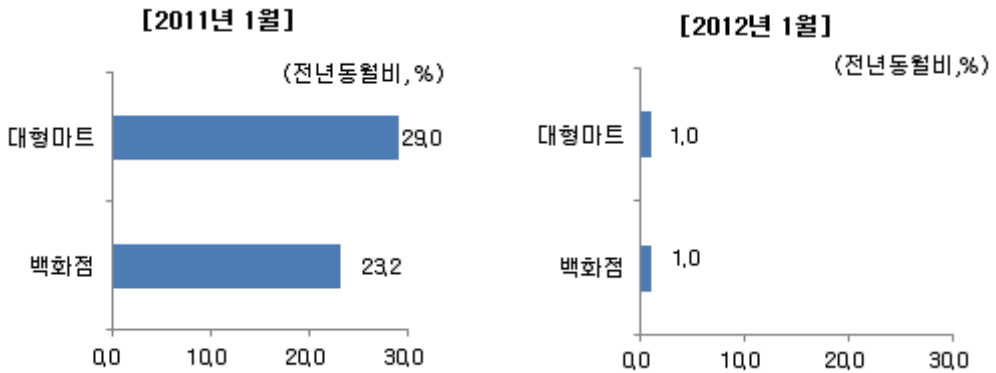
- 서울의 1월 대형종합소매업의 판매액 중 패션용품, 권역별로는 강남 3구 각각 1위
 - 백화점 판매액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54.4%)이며, 식품(18.1%), 생활용품(18.7%)인 것으로 나타났음
 - 권역별로는 4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40.6%인 4천759억원을 판매하였고, 다음으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 2권역(광진,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도봉) 순임

- 전국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전국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3.7%, 대형마트는 1.0% 각각 감소
 - 유형별로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1.9% 증가,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포함,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2%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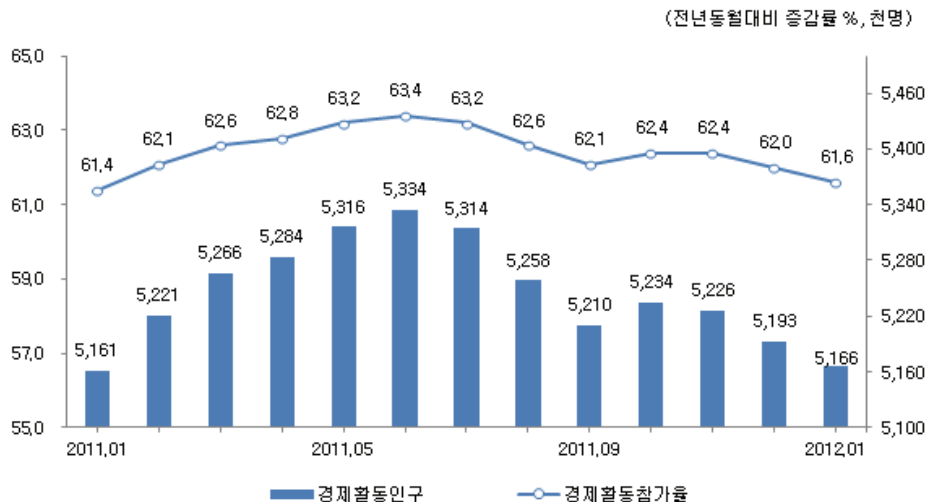
서울의 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월 15세 이상 인구는 8,38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천명(-0.2%)이 감소
- 경제활동인구는 5,16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0.1%)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는 3,22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명(-0.8%)이 감소

■ 전국의 1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1월 15세이상인구는 4,132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8천명(1.2%)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2,458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1천명(2.0%)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1.7%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자는 47.8%로 0.5%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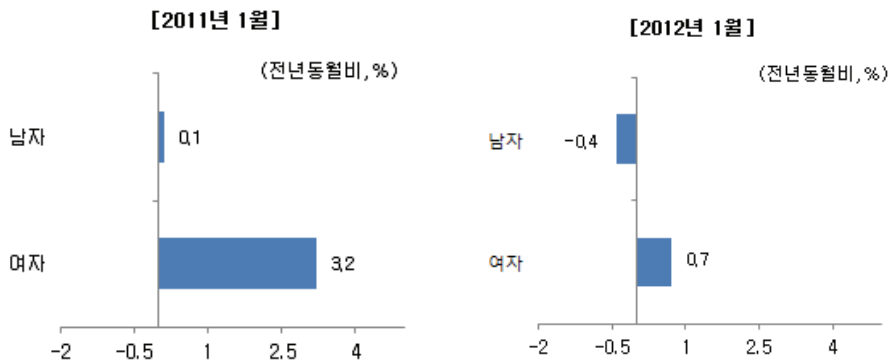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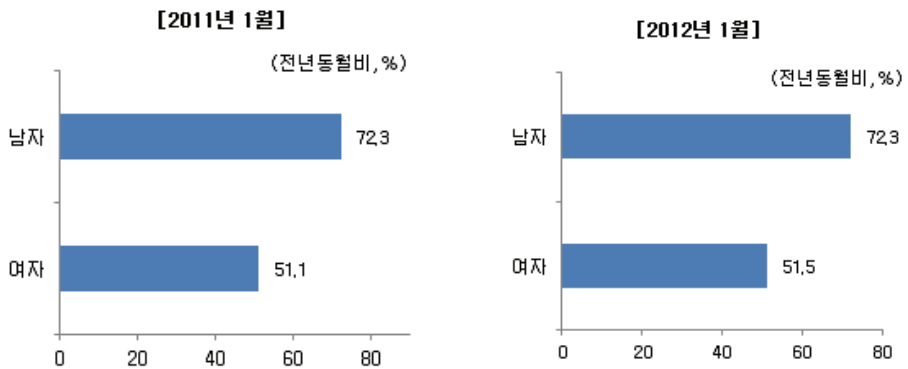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

■ 서울의 1월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36천명, 여자는 2,23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4% 하락, 여자는 0.7%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2.3%, 여자는 51.5%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각각 0.1%p 하락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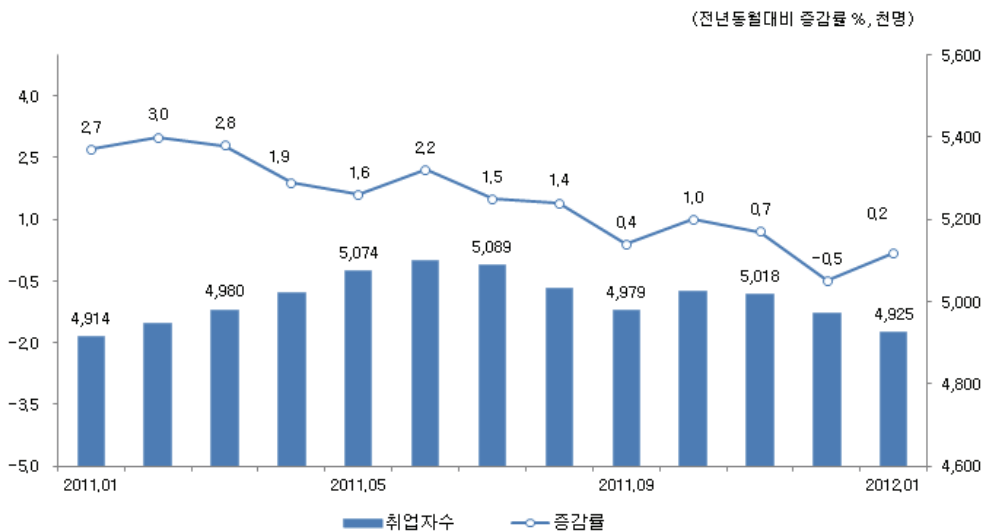
서울의 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 1월 취업자는 4,9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0.2%)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91천명, 여자는 2,1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4천명(0.1%), 여자는 8천명(0.4%)이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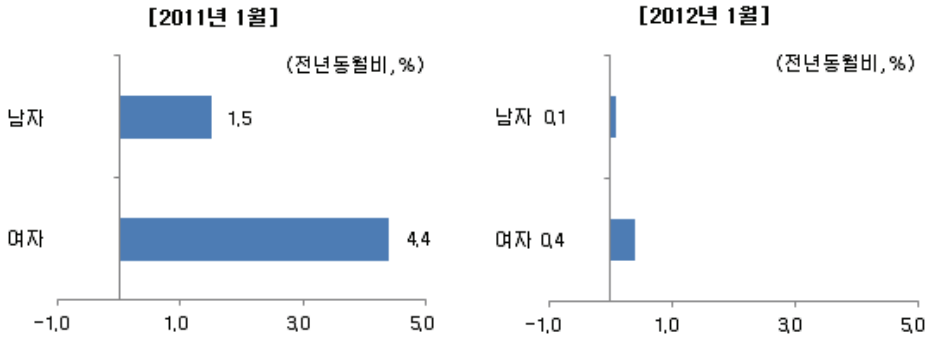
■ 전국의 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월 취업자는 2,373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만6천명(2.3%)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96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2천명(2.1%) 증가하였고, 여자는 976만7천명으로 24만4천명(2.6%)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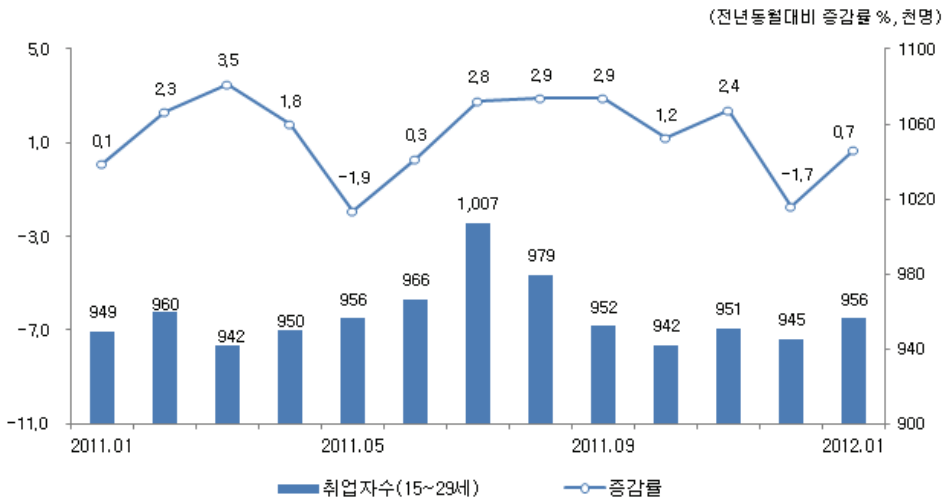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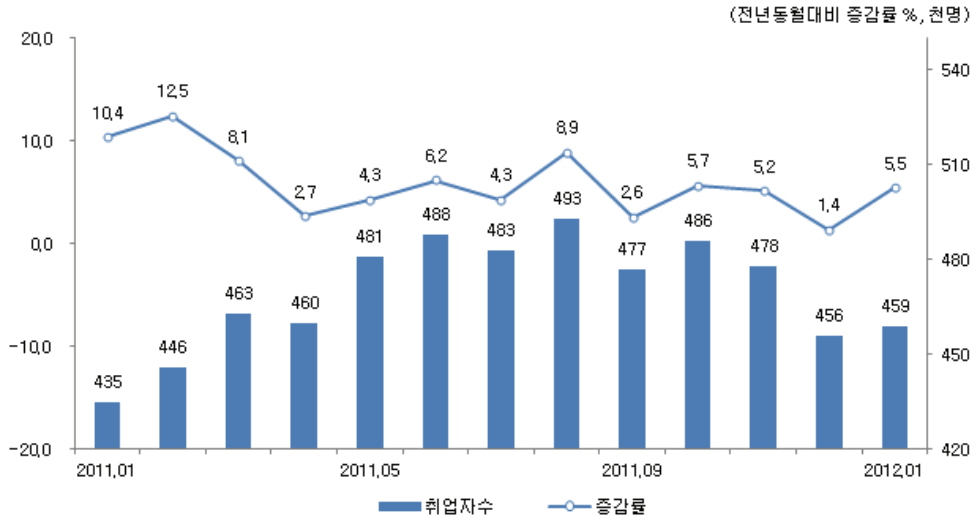
■ 서울의 1월 청년층(15세~29세),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 서울의 1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7% 증가로 4개월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
- 서울의 1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5%로 꾸준한 증가추이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0.3천명(6.8%), 도소매·음식숙박업 13천명(1.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7천명(0.9%), 전가·운수·통신·금융업 7천명(0.9%), 제조업 4천명(0.7%)이 각각 증가
- 반면, 건설업 30천명(-8.1%)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사무종사자 증가, 그 외 나머지 종사자는 감소

-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111천명(12.3%)이 증가함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7.9%),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42천명(-3.1%), 서비스·판매종사자 29천명(-2.4%), 관리자·전문가 28천명(-1.9%)은 각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감소,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35천명(-3.5%), 무급가족종사자는 14천명(-7.8%)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43천명(6.6%)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2천명(-3.6%), 일용근로자는 41천명(-9.9%)이 각각 감소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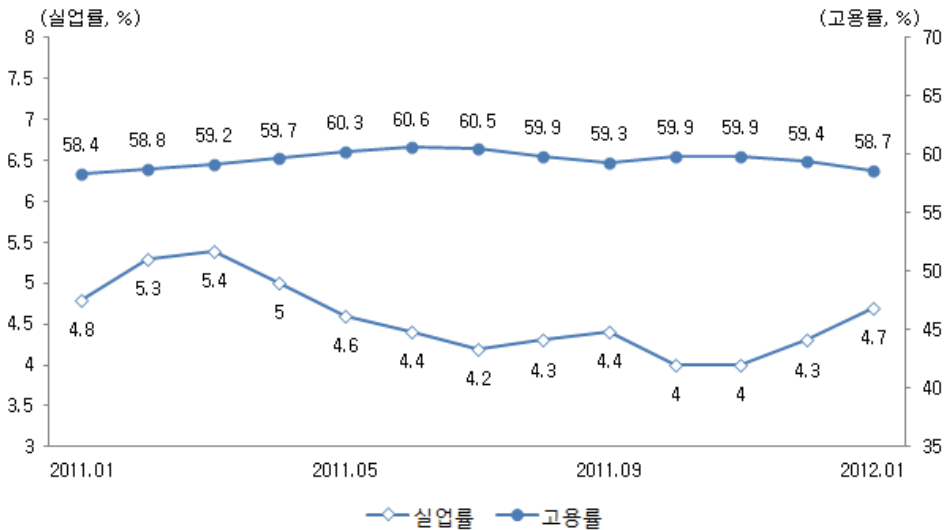
서울의 1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 서울의 1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월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7%로 전년동월대비 0.3%p, 여자는 49.3%로 0.2%p 각각 상승
- 서울시 고용률은 58.7%로 전국(63.0%)에 비하여 4.3%p 낮은 수준임

■ 서울의 1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서울의 1월 실업률은 4.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9%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한 반면, 여자는 4.3%로 0.3%p 상승
- 서울시 실업률은 4.7%로 전국(3.5%)에 비하여 1.2%p 높은 수준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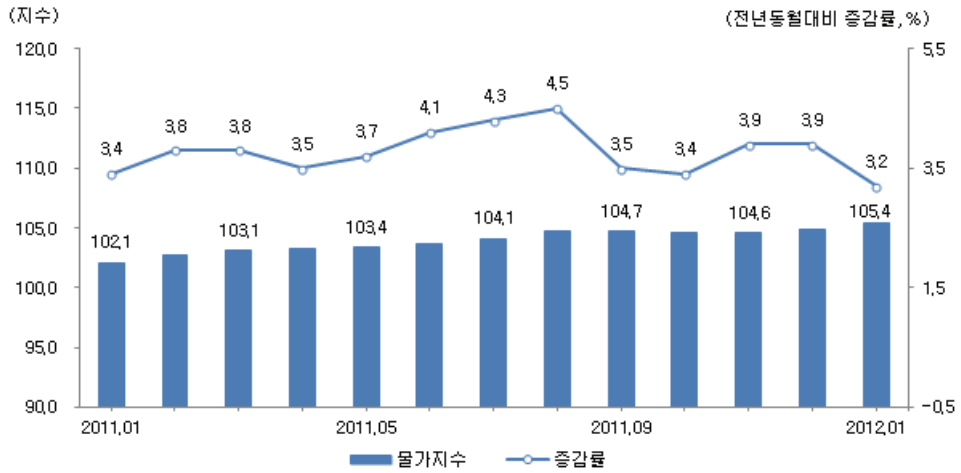
| 물 · 가 |

서울의 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3.2% 각각 상승
 -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4.1%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서비스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였으며 그 중 집세는 5.1% 상승, 공공서비스 0.9% 하락, 개인서비스 3.0%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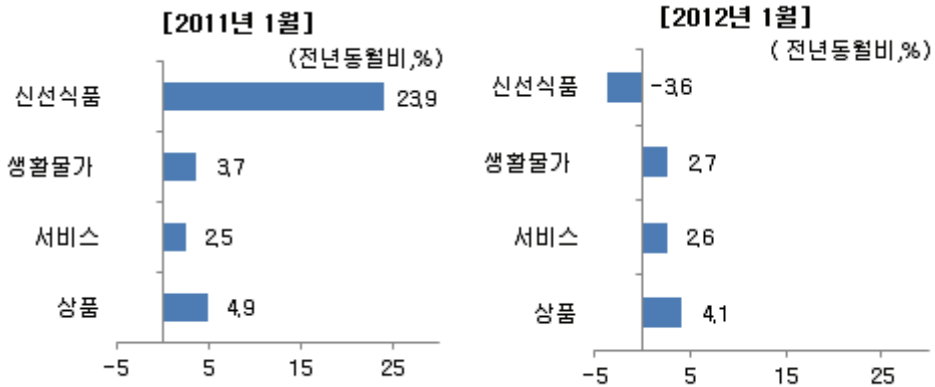
- 서울의 1월 전년동월대비 생활물가지수 상승, 신선식품지수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7%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6% 하락

- 전국 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7(2010년=100)로 전월대비 0.5% 상승, 전년동월대비로는 3.4% 상승하여 작년 12월의 4.2% 상승에 비하여 0.8%p 하락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3%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2% 상승, 전년동월대비 2.5% 하락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제주가 0.8% 상승하였고, 서울, 부산 경기 등 14개 시도는 0.5~0.6%씩 상승하였으며, 충북은 0.2%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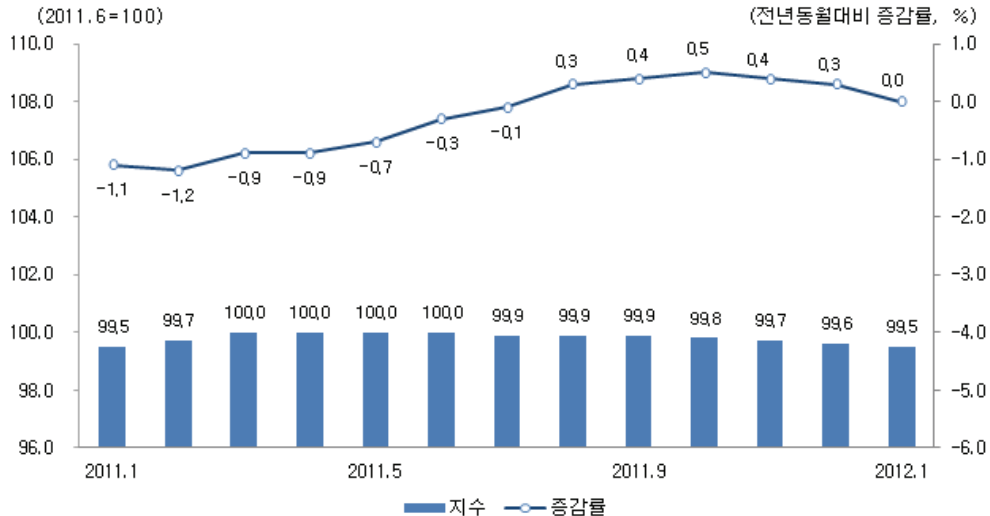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1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의 1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모두 0.1% 하락하여 3개월 연속 하락세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포함한 가운데 아파트는 0.2% 하락하여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하락을 주도
- 전국의 1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둔화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광역시와 기타지방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0.2% 상승
 - 수도권은 전월대비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각각 0.3%, 0.5%로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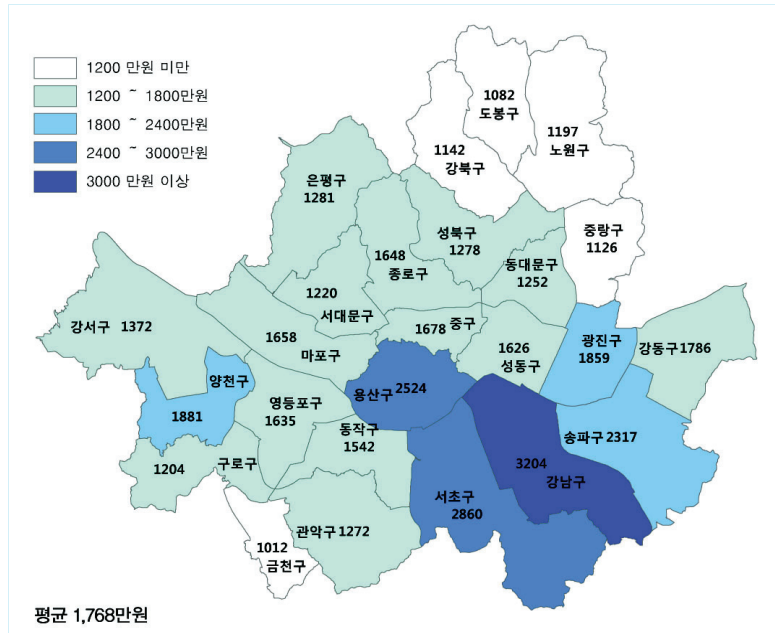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광진구와 종로구를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마포구와 강북구 등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1% 하락**
 - 마포구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감 하락,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등으로 매수심리 둔화세를 이어가면서 전월대비 0.2% 하락
 - 강북구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기대감 하락으로 매물이 적체되는 가운데 매수세 부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월대비 0.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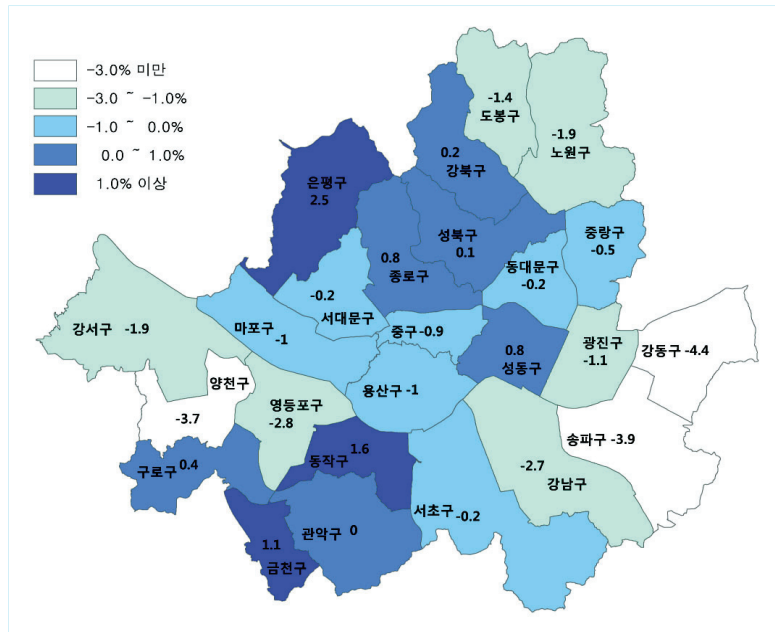
- **강남지역은 관악구와 금천구에서 상승하고 양천구와 강남구 등에서 하락하며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
 - 관악구는 아파트 매매시장이 한산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은 단독과 연립 주택으로의 수요가 발생하며 봉천동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 양천구는 실수요자들의 매수시장 관망세 확대로 거래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급매물 적체로 목동과 신월동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3% 하락
 - 강남구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수세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월대비 0.3%하락

- **서울의 1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1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767.6만원으로 전월대비(1772.3만원)대비 하락하여 11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04만원), 서초구(2,860만원), 용산구(2,524만원), 송파구(2,317만원), 양천구(1,881만원), 광진구(1,859만원), 강동구(1,78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12만원), 도봉구(1,082만원), 중랑구(1,126만원), 강북구(1,14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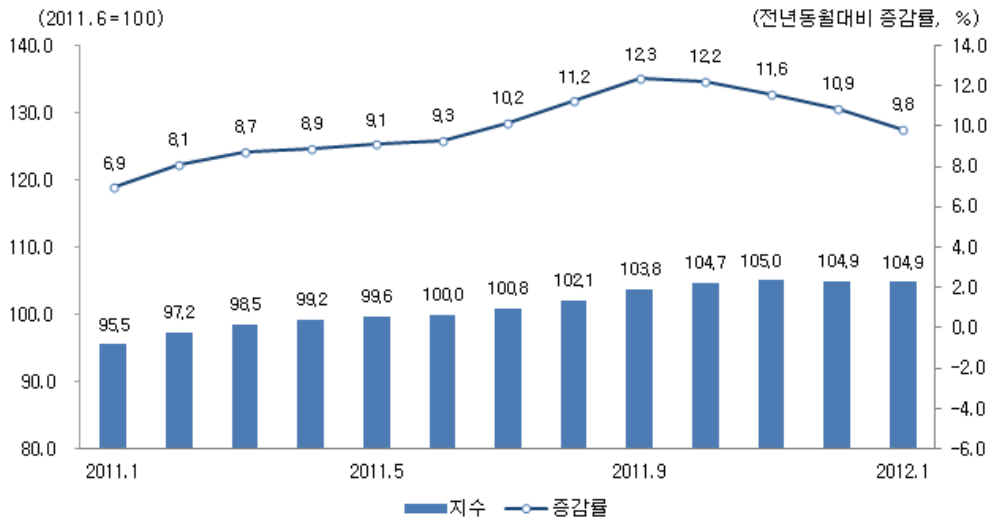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1월 주택전세가격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

- 서울의 1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보합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전세가격은 모두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전월대비 0.1% 하락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 가운데, 단독과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2% 상승
- 전국의 1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광역시와 기타지방이 전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전월대비 각각 0.4%, 0.6% 상승하며 전국적으로 0.2%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강북구와 광진구 등에서 상승한 가운데 도봉구와 노원구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1% 상승**
 - 강북구는 신혼부부 수요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연립주택으로의 선호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5% 상승
 - 노원구는 계절적 비수기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전세물량이 적체되며 전월대비 0.1% 하락

- **강남지역은 강동구와 관악구 등에서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와 양천구 등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보합**
 - 강동구는 고덕시영 재건축 이주수요가 발생하면서 물량 부족으로 전월대비 1.1%로 큰 폭 상승
 - 관악구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낀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인근 빌라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유입되면서 전월대비 0.1%로 소폭 상승
 - 강남구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강남구로 유입되는 수요 및 예년 대비 겨울방학 학군수요는 감소하고 신분당선 개통으로 강남으로의 교통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외부로 이주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6%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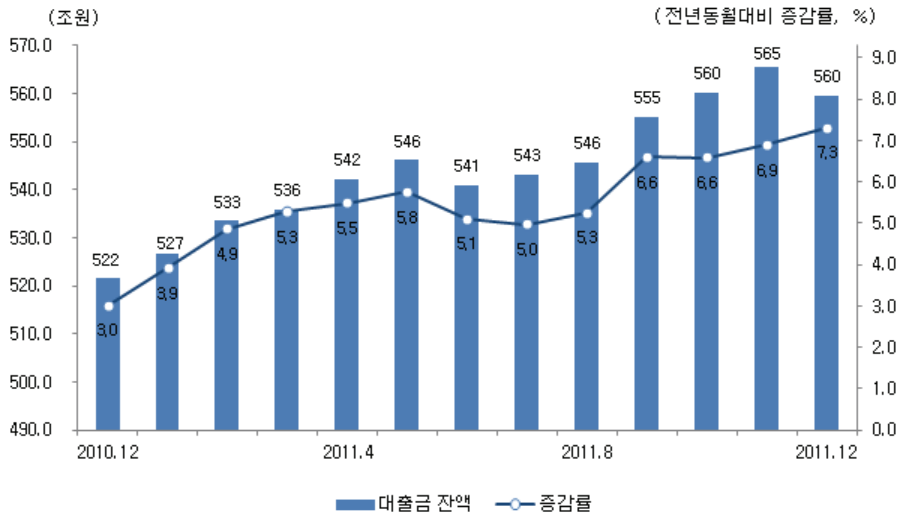
- **서울의 1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1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42.0만원으로 전월대비(841.3만원) 소폭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1,301만원), 서초구(1,212만원), 송파구(1,021만원), 용산구(967만원), 광진구(924만원), 중구(895만원), 양천구(891만원), 종로구(888만원), 마포구(869만원), 성동구(85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46만원), 도봉구(578만원), 강북구(592만원), 중랑구(63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의 1월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월 중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1.0%로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60.2%p 보다 9.2%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9.3%p)보다 좁혀짐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53.5%, 강남 48.9%로 강북이 강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북간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상승세 둔화

| 가 · 계 · 대 · 출 |

서울의 12월 서울과 전국의 대출금 잔액 5개월만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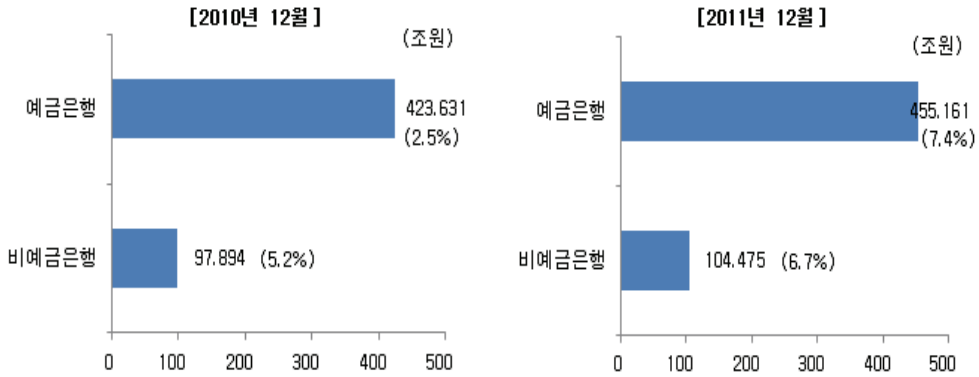
- 12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증가세에서 감소로 전환
 - 12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59조 6,362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5조 8,359억원(1.03%) 감소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5조 1,608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4조 4,754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7.4%, 6.7% 증가
- 12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개월만에 감소
 - 12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08조 8,952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 21억원(0.35%) 감소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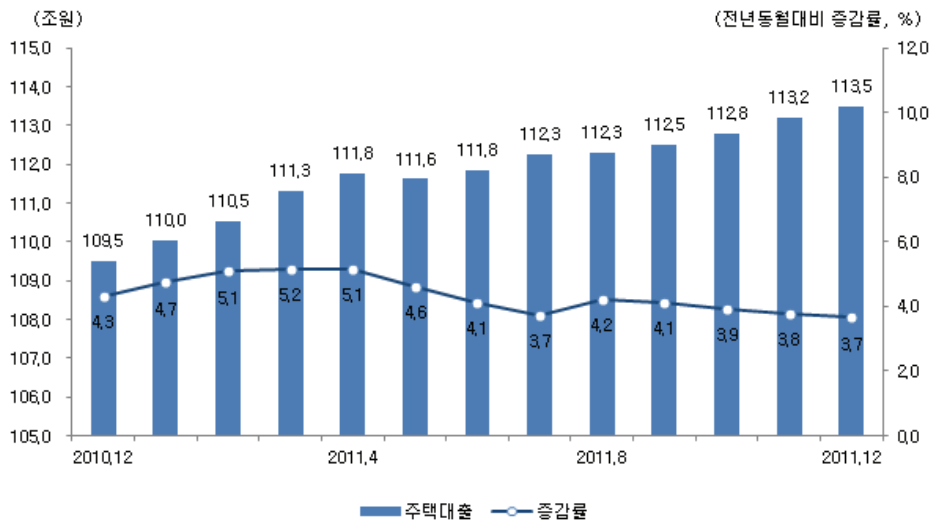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12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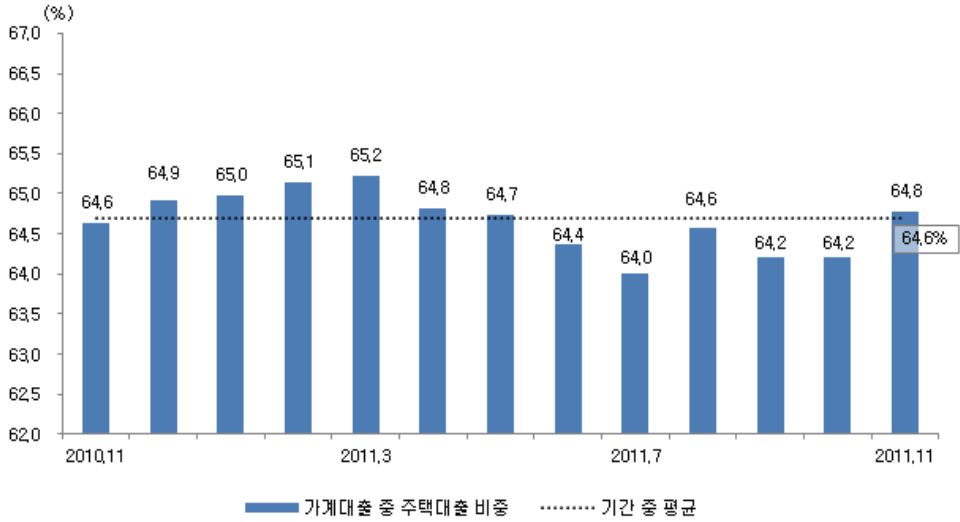
- 12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5조 716억원으로 전월대비 288억원(0.1%) 감소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3조 511억원(64.8%)으로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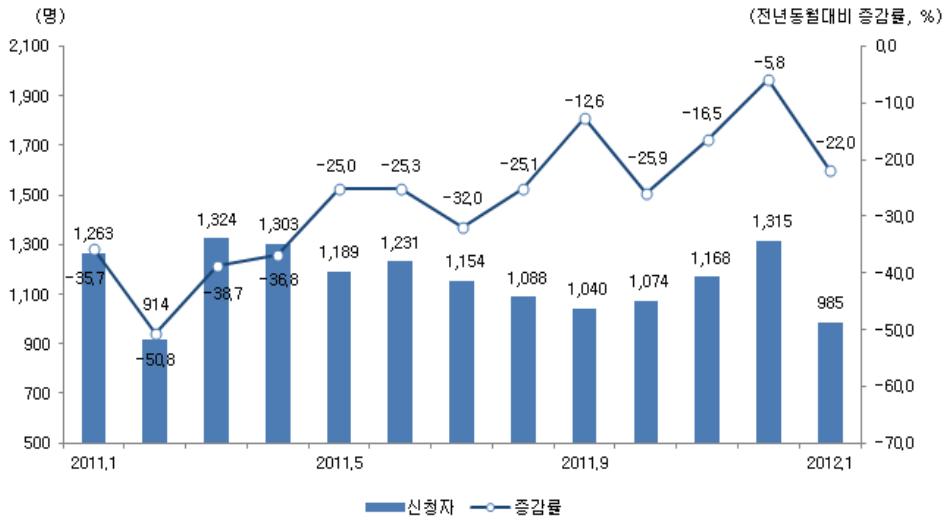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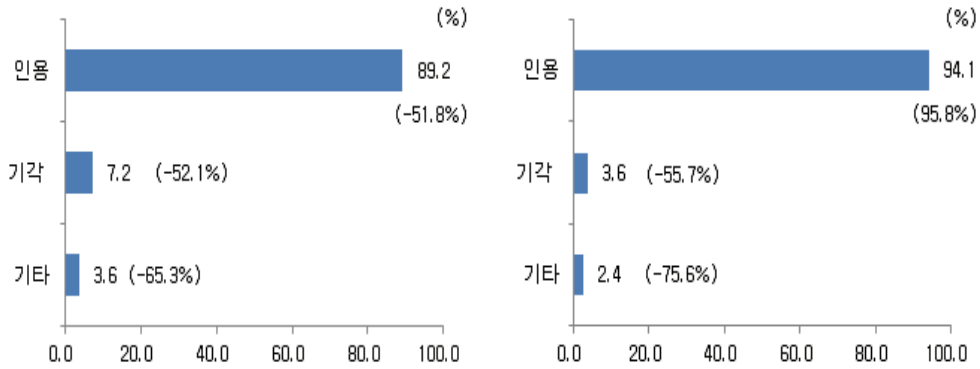
■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크게 감소

- 1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985명으로 전월대비 25.1%, 전년동월대비 22.0%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7.2%로 전월대비 38.7%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은 3.6%로 전월대비 52.0% 증가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그림> 1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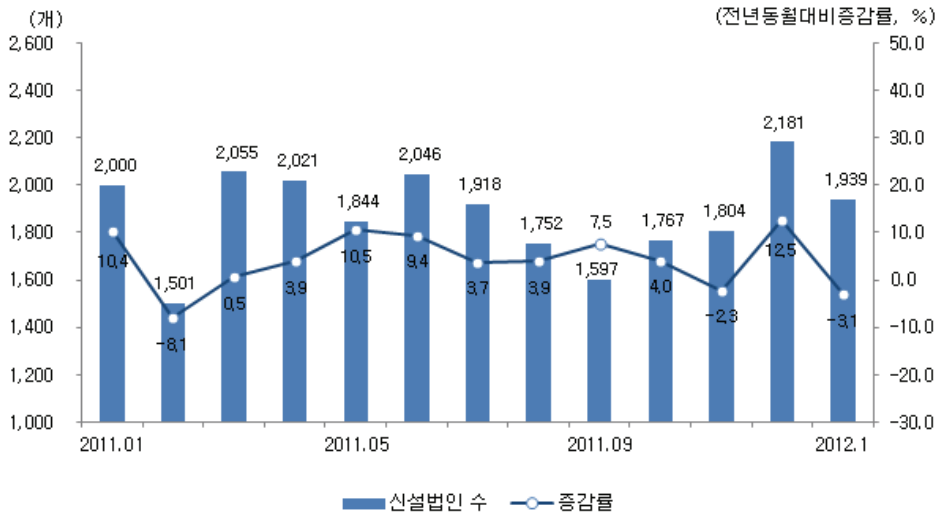
<그림> 1월 면책 처리현황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동 · 향 |

서울의 1월 신설 및 부도 법인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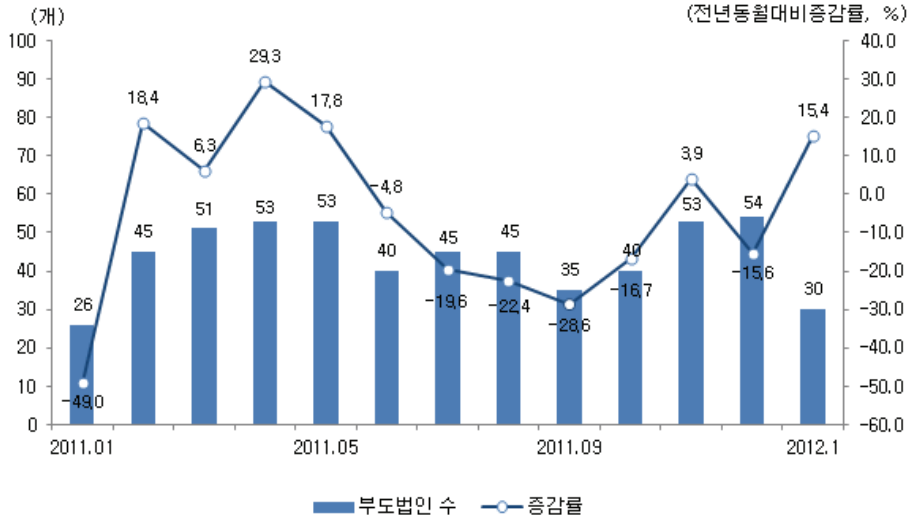
- 서울의 1월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감소, 모든 업종 신설법인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939개로 전월대비 11.1%(242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3.1%(1개)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대비 30.6%(104개)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각각 7.6%(130개), 3.3%(4개) 감소

- 서울의 1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감소,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부도법인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0개로 전월대비 44.4%(24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15.4%(4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대비 10.0%(1개)증가한 반면, 건설 및 설비업과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각각 70.6%(12개), 41.7%(10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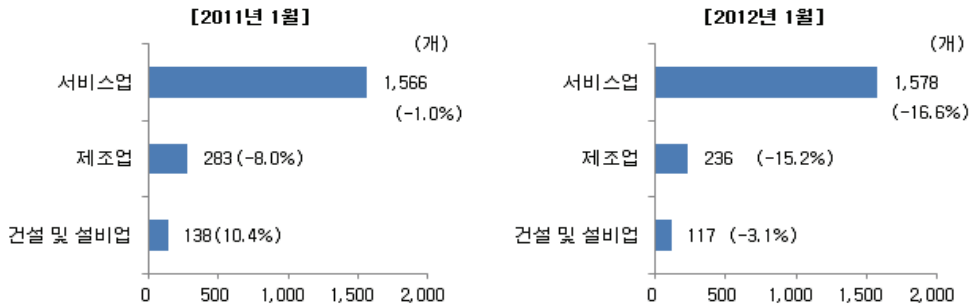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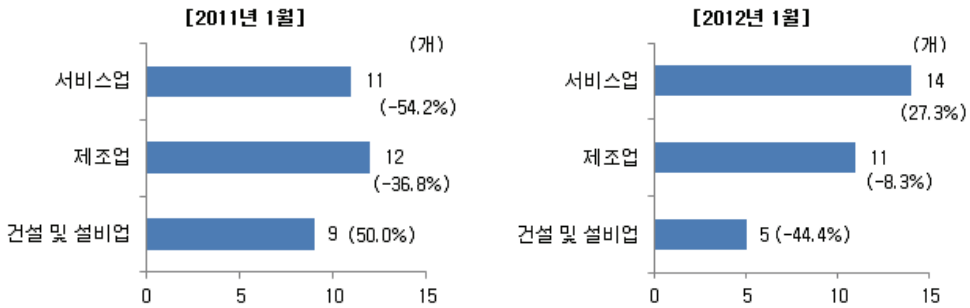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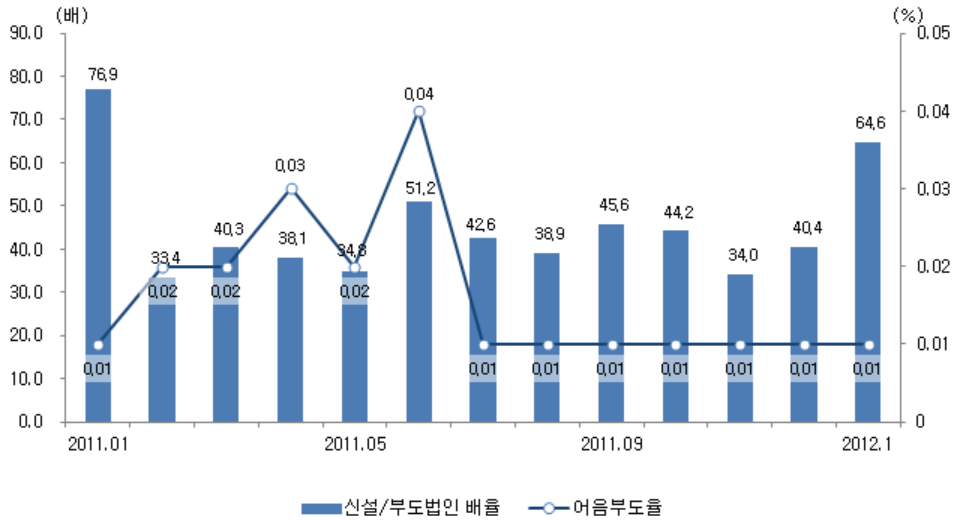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비율은 최근 1년중 가장 높은 수준
 - 1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전월과 동일한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비율은 64.9배로 전월(40.4배)보다 상승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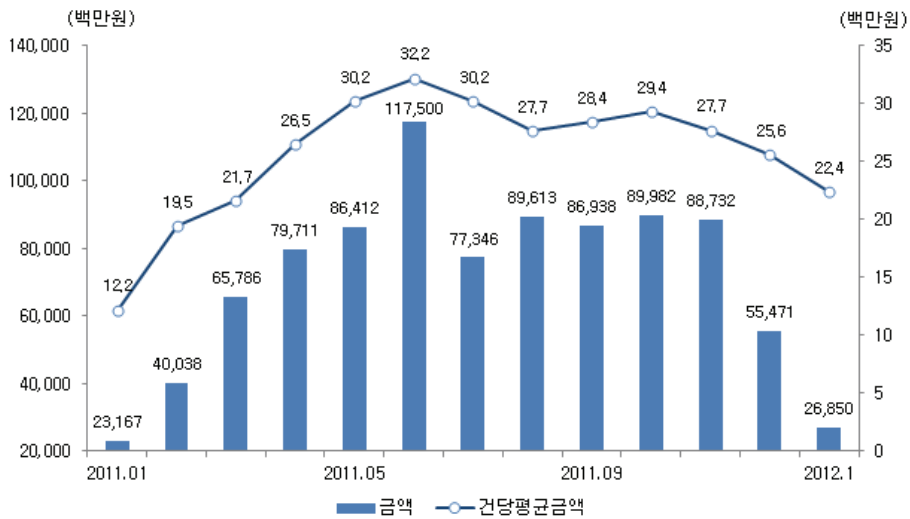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서울의 1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전월대비 감소

■ 보증지원 금액과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월 중 1,197건, 26,850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44.8%, 보증금액 51.6%, 건당 평균지원금액 12.4% 감소
-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36.8% 감소한 반면 금액과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각각 15.9%, 83.4%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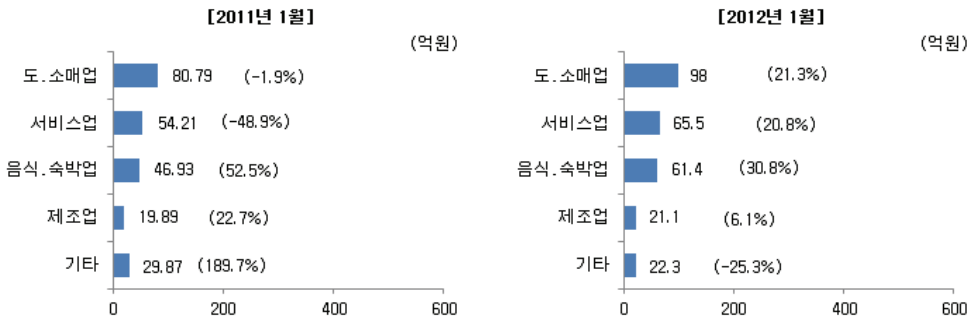
■ 서비스업 지원 금액 전월대비 상승

- 1월 중 서비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24.4%로 전월(20.8%)대비 3.6%p 증가한 반면, 제조업종에 대한 지원은 7.9%로 전월(9.0%)대비 1.1%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도·소매업종은 35.8%로 전월(33.4%)대비 2.4%p 증가하였으며, 음식·숙박업종은 21.6%로 전월(26.5%)대비 4.9%p 감소

■ 소상공인 지원 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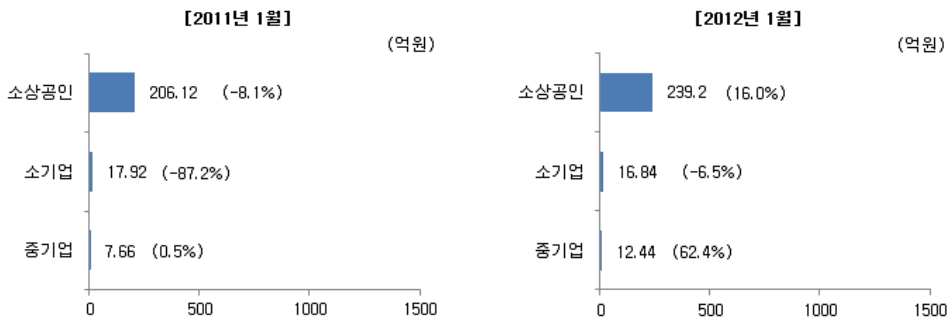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1.9%로 전월대비 7.2%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92.6%로 전월대비 1.5%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6.3%로 전월대비 4.5%p 감소, 건수기준 3.9%로 전월대비 1.0%p 감소하였고 중기업 비중도 금액기준으로 4.6%, 건수기준으로는 3.4%로 전월대비 각각 2.7%p, 0.6%p 감소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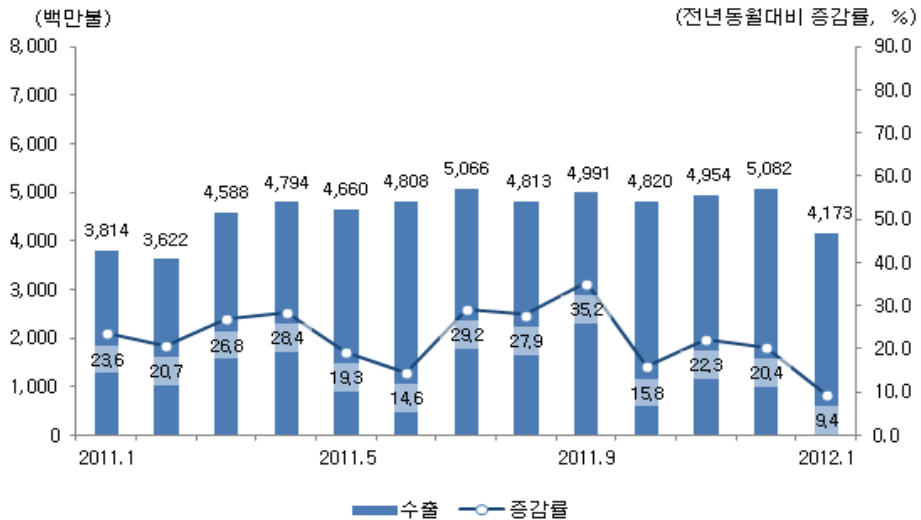
서울의 1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크게 감소

■ 서울의 1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크게 감소

-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4% 증가한 41.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0.6% 증가한 96.7억 달러 기록
-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3% 감소한 412.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3.5% 증가한 434.4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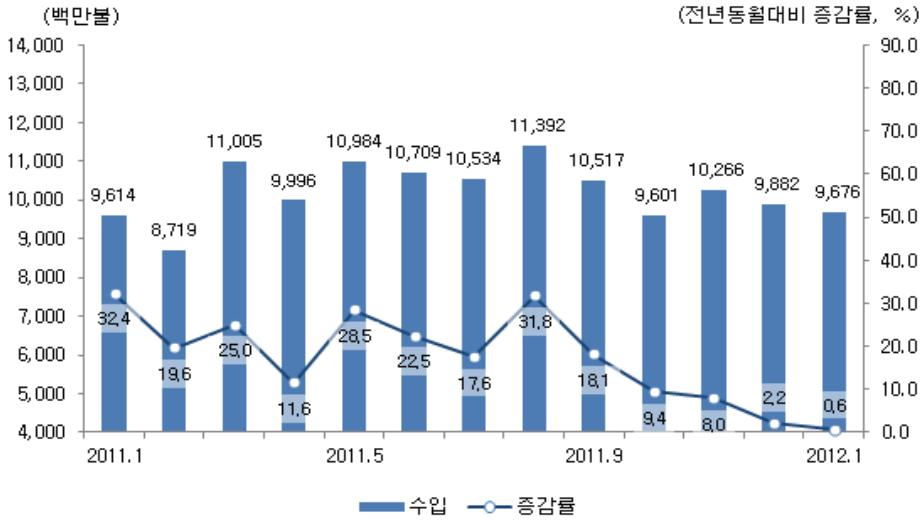
■ 서울의 1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507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937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의류, 자동차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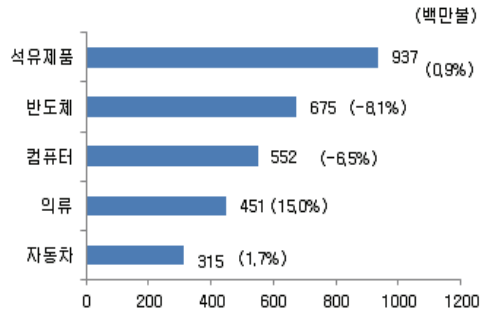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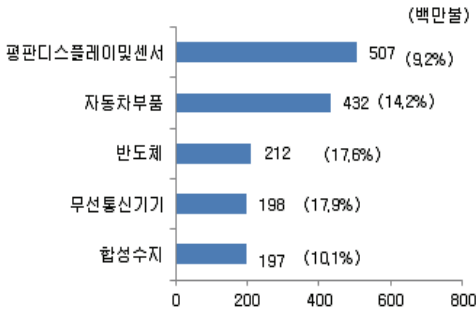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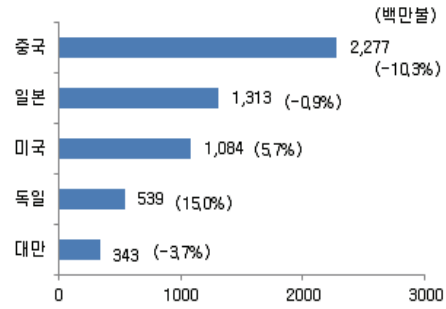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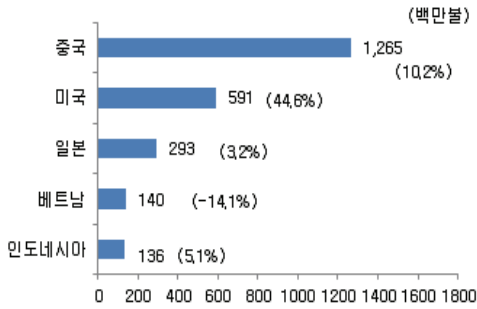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1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1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한 1,265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0.3% 감소한 2,277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대만 순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1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표〉 1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

구분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천불	증가율		천불	증가율
미국		합계	591,252	44.6	합계	1,083,989	5.7
	1	무선통신기기	121,296	132.1	항공기 및 부품	84,965	21.0
	2	자동차부품	99,759	-4.9	기초유분	66,344	35.7
	3	고무제품	68,894	19.6	육류	60,800	-25.2
싱가포르		합계	60,891	18.4	합계	250,538	-5.4
	1	반도체	21,253	53.1	반도체	99,986	-23.7
	2	기초유분	3,928	131.9	컴퓨터	39,311	23.4
	3	컴퓨터	2,929	-29.1	석유제품	31,758	78.0
페루		합계	4,433	-18.3	합계	23,916	387.6
	1	합성수지	1,298	59.1	금은및백금	19,872	507.1
	2	합성고무	528	-0.4	곡실류	1,504	3,641.9
	3	엘리베이터	452	-	동제품	1,147	-
칠레		합계	10,632	37.0	합계	73,528	31.0
	1	자동차	3,478	60.7	동제품	43,152	73.9
	2	고무제품	1,712	24.6	육류	8,368	-11.1
	3	합성수지	987	43.6	제지원료	7,365	-38.1
인도		합계	85,273	-8.1	합계	158,163	-40.5
	1	합성고무	28,540	14.7	석유제품	77,984	-45.4
	2	자동차부품	9,554	-28.8	기초유분	14,329	69.2
	3	합성수지	8,568	9.0	천연섬유사	8,669	-76.0